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4주일

아버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니, 가련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따라 살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9월 기도지향

- 신임 본당 사제
- 캔사스 한인 카톨릭 공동체

■ 평협회

- 일시 : 9/20(주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 캔사스시티 한인회, 추석맞이 민속 잔치

- 일시 : 2015년 9월 26일 오전 11:00시작.
- 장소 : Corporate Woods Founder's Park
(9401 Indian Creek Pkwy (W. 109th st.), Overland Park, 66210
- 입장료 : 개인당 \$5.00(점심포함) 5세 이하, 65세 이상 무료

■ 캔사스시티 한인회, 한인회 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2015년 9월 20일(주일) 오후 1:00 (첫 티오프)
- 장소 : Grand Summit Golf Course.(15101 Grand Summit Blvd, Grandview, MO 64030)
- 참가비 : \$100.00(점심 제공)

■ 주간 전례

- 9/15(화) : 고통의 동정마리아 기념일

■ 로렌스 공동체 미사

이번 달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 추석 합동위령미사

9월 27일(주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를 성성껏 봉헌합니다.

■ 교무금에 대하여

저희 캔사스 한인 공동체는 여러 교우님들의 교무금과 도네이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무금의 부담은 신앙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어려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25가정이 교무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9	216	500/165	286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차주	정예찬 미카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칭채린 소피아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최은미 아녜스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차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9/6	87명	437불	1640불
정석원, 문석찬, 김화연, 현교정, 정지현, 정연숙, 정세원, 임명숙, 현주용, 은유나, 정준구 (총 11세대-지난주까지 포함)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인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제단 둘레에 모여, 이렇게 다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림 묵상

각자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합니다. 아픔은 영혼의 힘입니다. 천상으로 오르기 위해 아픔의 계단을 딛고, 겸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5-9-

<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

화 답 송 :



나는 거닐리 - 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리 - 라.

- 주님을 나는 사랑하노라. 당신께서는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고 내가 당신을 부르던 그날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셨음이다. ◎
-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 지옥의 올무가 나를 덮쳐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었노라. 나는 당신 이름 부르며 빌었었노라. 주님 이 목숨 살려 주소서 하고. ◎
- 주님께서서는 의로우시고 다정도 하시어라. 우리들의 하느님께서서는 인자도 하시어라. 순진한 사람을 주님께서서는 지켜주시니 가엾던 이 몸을 살려 주셨도다. ◎
- 죽을세라 이 목숨 건지셨도다. 울세라 이 눈물 지키셨도다. 넘어질세라 이 발을 지키셨도다. 나는 거닐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리라. ◎

제 2 독서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4-18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27-35
<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자주 사람들은 바오로 서간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또 야고보 서간은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바오로 서간은 지속적으로 ‘행업’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된다고 강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사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표현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바오로 서간과 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오로와 야고보 서간이 말하는 것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신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보상처럼 ‘내가 무엇을 했으니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미 실천을 포함합니다. 믿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이상 야고보서에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또한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는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전합니다. 실천과 믿음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이 구분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믿음일 것입니다. 믿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그들이 들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

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단지 베드로만이 나서서 “스승님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하고 답합니다. 흠 잡을데 없는 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역시 자주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을, ‘나’의 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앞서 가거나 그분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제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게 있지만 내가 외면하고 싶은 어떤 것입니다. 이것만 없다면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게 있는 이런 어려움을 없애주시사 청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놓여진 어려움을 없애 주시는 것이기 보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편안한 길을 구하기 보다,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주시도록 청해봅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두 죄수

로마 병사들은 사형집행장인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긴 뒤 십자가 위에 눕어 놓고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 위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얼마 후 병사들 여럿이 달려들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인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조롱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무엇이랴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13-34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언덕에 세운 다음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백성들은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으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조롱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놀리며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말로 조롱했을까요? 그리고는 나무 팻말에 글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랴 썼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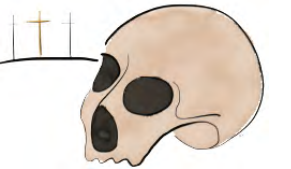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듣다못해 예수님을 비난하는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 죄수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39-43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한 죄수는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단순해지고 솔직해집니다. 이것은 코 체념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자기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또 있을까요?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